

지역 소식통

김제탄소포인트제 장학생단에 기부

김제시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기부를 희망하는 421세대의 인센티브 640만 8,500원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부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써 현재 1만1,846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1,549세대가 전기 96만kwh를 절감하였으며 이는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 41톤이며, 어린소나무 2만5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기부는 421명을 대표하여 김제시 그린 리더협의회 사이자화장이 대표로 9일 오전 10시에 시청실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봉사대, 전남 완도에 재능기부

김제시 교월동 당신뎨져 봉사대(공동대표 최희영, 김주택)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남 완도군 청산면일대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촬영 및 미용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재능기부에는 최희영, 김주택 봉사대 대표를 비롯하여 아모레옴점(조현경), 박종순 미용실(박종순), 뽀빠이포토(이성수), 제일사회복지관(여은경) 등이 참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찍고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인 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당신뎨져봉사대는 매일 교월동 소재 마을을 순회하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사진촬영, 미용봉사 및 중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따뜻한 교월동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마을회, 손주사랑 교실 운영

김제새마을회는 올해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한 가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손주사랑' 사업에 선정돼 매주 화요일마다 김제시 새마을회관에서 손주사랑 교실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지난 8일간 마감하고 교육을 이수한 40여명에게는 수료증을 지급하는 등 성황리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손주사랑 교실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손주돌봄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단절을 예방하며 자식세대간 소통과 이해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평선축제 사전접수로 흥미유발

## 김제시, 내달 8일까지... 축제 홈페이지 접속 '참가신청' 작성

김제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프로그램 중 그간 방문객에게 참여도와 인기도가 높은 11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는 9월 8일까지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imje.go.kr)에 접속하여 우수 상단의 '참가신청'을 클릭하면 별도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없이 작성·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접수 프로그램으로는 '대형떡 세계 국기 만들기', '벽골제 쌍룡 햇불 퍼레이드', '모라모라! 아궁이 쌀밥짓기', '김제 벽골제 야(夜)한 밤에', '세계인 대동 연날리기', '비거(글라이더) 경연대회', '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전국(글로벌) 그네뛰기 경연대회', '새끼꼬기 달인을 찾아라', '지평선쌀로 전통 가양주 만들기

기 체험', '지평선 별해는 밤에'로 총 11개 프로그램이다. 올해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9월 22일에 열리는 '대형떡 세계 국기 만들기'는 선착순 1,000여명 제한하며, 행사를 마친 후에는 맛있는 떡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벽골제 쌍룡 햇불 퍼레이드'는 선착순 1,300명으로 제한하며, 별도의 체험비 없이 참가자 전원에게 행사 참여에 필요한 햇불과 기념타일이 증정된다.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축제기간 5일간 벽골제 생태마당에서 열리는 '모라모라! 아궁이 쌀밥짓기'는 역대 가장 많은 2,017인분 쌀밥짓기에 도전할 예정으로 김제쌀의 아궁이 밥맛을 맛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제 벽골제 야(夜)한 밤에', '세계인 대동 연날리기', '비거(글라이

더)경연대회', '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지평선 별해는 밤에', 전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글로벌) 그네뛰기 경연대회', 지푸라기와 지평선쌀을 이용한 '새끼꼬기 달인을 찾아라' 및 '지평선쌀로 전통 가양주 만들기 체험'도 지평선축제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방문객 선호 프로그램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체험 신청을 받고 있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한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농경문화와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을 현재에 맞게 '콘텐츠'로 접목한 김제지평선축제는 단연코 체험 프로그램의 베스트셀러 축제이며, 사전 접수를 통해 축제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없이 제대로 된 농경문화 체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인문독서콘서트 성황리 마쳐

6주간 진행된 완주군 인문독서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9일 완주군은 지난 달 4일부터 8일 까지 6주 동안 진행한 '2017 완주군 인문독서콘서트'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매주 6개 주제로 국내 유명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인문독서콘서트는 총 500여명의 완주군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독서콘서트에서는 '패시브 건축의 이해(최정만)', '자연에서 배우는 크리에이티브(권오준)', '고전은 드라마다(명토진)',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임진모)', '생각이 바

뀌면 삶이 바뀐다(김경집)', '기생충 & 독서(서민)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사전공연으로 주민들의 유희를 위한 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인문독서콘서트는 관내 주민들의 인문정신문화 고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인문화에 한걸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완주군민과 소통해 주민이 원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결혼 이민자 위한 '통번역 서비스' 호평

##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받아 경찰 도움 얻어

완주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A씨는 최근 폭행피해를 당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과정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가 있음을 지인에게 전해 듣고, 경찰서 피해자 진술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아 경찰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중국 결혼이민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쉽게 학교를 찾아가지 못했다. 또 한국의 학교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무작정 학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상황에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가 학교에 동행해줬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상담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지도 서비스까지 알게 돼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가 다문화가정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통번역 서비스는 부부간 의사소통, 입학초기 상담, 국적 관련 정보 제공,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생활정보 안내, 자녀의 교육과정 통역지원 등을 센터 내방 및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사법기관, 병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취업 관련 통역을 비롯해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명의 통번역사(베트남어, 중국어)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약 1,800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되지 않은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번역지원사가 한국어에 능통하고 생활에 익숙해진 결혼이민자로 구성돼 이루어진 입장을 잘 이해하고, 친구이자 선배로서의 조언과 멘토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요리 레시피, 자녀 알람장, 각종 증명서 통역까지도 해주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지역기관도 이용가능하며,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231-1037)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휴가철 야영장 점검·불법행위 합동단속

휴가철을 맞아 완주군이 야영장 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9일 완주군은 관내 20개소의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 및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미등록야영장에 대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중 실시되며, 완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 적발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완주군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사업주에게 불법 운영 근절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미등록 영업행위를 벌이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야영장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기본방제기간 지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를 벼 병해충 기본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출수기(이삭이 피는 시기)를 전후로 살균·살충제를 중점 방제토록 홍보지도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벼 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벼이삭이 팽 때(7월하순~8월상순)를 전후로 이삭도열,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멸강나방, 먹노린재, 밀구류를 예방할 수 있는

살균·살충제를 통시방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로는 관행 3~4회를 해왔지만 현재의 방제시스템은 2회 기본방제로 예방위주의 필수방제와 피해입 1~2회 보일 때 실시하는 보완방제가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